

녹색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4 총선을 앞두고

채효정

2024 녹색당 총선, 2020 어게인?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후위기 급박하니, 녹색당이 반드시 원내진입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성정당은 나쁘지만 선거연합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일 수 있지만 선거연합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나쁘지만 그에 대항하는 위성정당은 괜찮습니다.”

“민주당과 하는 선거연합은 나쁘지만 정의당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2020이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녹색당이 앞에서 말하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은 녹색당은 자력으로 원내진출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원내진입을 하려면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민주당이었고, 지금은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녹색당을 필요로 했듯이, 지금 정의당은 녹색당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대표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는 자기 의지나 진심의 표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려와 비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주장과 설득력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녹색당의 해명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원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꿈수가 아니다, 편법이 아니다, 당당하게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녹색당 안에서 녹색당을 바라보기

조직-
당원-
재정-
역량-

우리는 회복했는가?

우리는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당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가?

녹색당 밖에서 녹색당을 바라보기

- 진보정당 내 양당구도 내 녹색당의 위치
- 진보정당 기후녹색운동과의 강력한 선거 연합 실패
- ‘기후정치’ 위한 ‘정치세력화’ 실패
- 현실 속에서 객관화 하기

우리는 회복했는가?

우리는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후 선거연합의 원칙을 제대로 수립했는가?

선거연합인가, 선거용 연합인가 녹색-정의당 선거연합의 문제

선거연합의 형식에서: 지도부 탈당과 의결기구 공백 문제

선거연합의 내용에서: 가스민영화법 사례

총선 이후의 녹색당을 바라보기

원내진입 못할 경우-

원내진출 했을 경우-

선거보다 더 긴 시간을 내다보기

“IMF보다 더 큰 것이 온다”

기후, 전쟁, 핵, 금융위기 – 복합중층위기
진보정당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선거도 안 하면 뭘 하자는 거냐구요?

-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
- ‘정당-선거-의회’라는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정치의 틀을 넘어서기
- 지금이야말로 ‘반정당의 정당’이 되어야 할 때

기후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정치 급박하다 = 녹색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기후정치 = 원내정치

기후정치 = 녹색당+정의당+기후녹색(?)운동세력



2020총선 연합의 키워드는 ‘그린뉴딜’

하지만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의당의 그린뉴딜, 녹색당의 그린뉴딜, 녹색당 안의 그린뉴딜
모두 상이 달랐습니다.



많은 정치학자, 사회운동가들이 긴박함에 포획된 기후정치가 비상사태 혹은 예외상태의 정치를 불러올 것을 전망하고 우려합니다.(기후 리바이어던 혹은 기후 파시즘, 기후 마오주의)
‘기후정치’가 그 자체로 절대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후정치냐, 어떤 녹색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선거연합 전략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정의와 불의
이익과 손실

가치와 이념
방법과 기술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선거연합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선거연합전략은 좌파도 하고 우파도 합니다. 프랑스의 선거연합정당(불굴의 프랑스,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은 '좌파연합'입니다. 김대중, 김종필의 JYP연합은 우파연합이었습니다. 2022년 스웨덴과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우파연합이 승리하여 네타냐후 총리가 복귀했습니다. 2023년 스페인 총선에서도 우파연합이 승리했습니다. 대체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다수 국가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선거연합은 우파연합에 맞선 좌파블록의 전략으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서로 다른 정치제도 및 정치적 토양을 고려할 때만 유의미한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녹색당 선거연합은 어떤 선거연합 입니까?
지금 선거연합논의는 이익과 손실, 방법과 기술에만 치중한 정치공학이 아닌 공통의 이념적 목표와 정치적 가치에 기반한 내용적 연합이 맞습니까?

착각 혹은 망각에서 벗어나 리얼리스트가 되자

- 지금 진보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녹색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선거의 시간 속에 진보정치를 두지 말고 진보정치의 시간 속에 선거를 배치하자.
- 기후정의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진영, 민주노총, 다른 진보정당들을 패싱한 두당 연합은 필패의 전략이다.
- 실패한 정의당 모델 (지역 기반 없는 중앙당 중심, 소수 인물 중심 정당)은 절대 따라선 안될 길이다.
- 기후운동에서조차 제척당하는 기본소득당을 보면서 한번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오래 그 당사자에게 묻어지는지 생각해보자.
- 양당구도에 책임을 돌리기 전에 2020 총선 위성정당 사태를 정확히 복기하고 평가함으로서만 녹색당은 대안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 녹색당의 현재 위치와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자.
- 선거 이후를 생각하자. (원내진입 못했을 경우, 했을 경우 둘 다 준비되어 있는가)
- 당, 조직, 운동의 백업과 통제 없는 국회의원은 결국 의원 1인 체제로 귀결될 것